

제6장 토론문

서론

발제자는 경계가 고정된 자연적 실체가 아니라는 플린트의 주장을 훌륭하게 짚어내었으며, 본 토론자는 그것이 특정한 시대의 생산력과 생산관계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적·경제적·공간 장치라는 발제자의 통찰에도 동의한다. 고대 국가인 고구려의 지배 공간을 현대 국민국가의 선형적인 국경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시대적인 차이를 무시하는 해석이라는 비판은 특히 날카롭다.

그러나 발제문이 고구려의 경계가 유동적이었다는 사실을 규명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논의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토론문은 이를 바탕으로 한 걸음 진전시켜, 현대의 정치적 행위자들이 이러한 역사적·학술적 모순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과거의 유동적 공간을 근대적 영토로 전유하여 지정학적 갈등을 유발하는지 그 현대적 동기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역사적 공간의 근대적 지도화

발제문에서도 언급했듯이, 현대 국가는 특정 영토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명확한 공간적 범위를 필요로 하며, 경계는 통제할 인구와 자원의 범위를 규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 그러나 고구려와 같은 고대 국가는 오늘날과 같은 선형적 국경을 지니지 않았으며, 성곽, 군사적 방어선, 조세 수취 범위 등을 통해 지배권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전 근대적 지배 공간은 국가 권력이 영토의 말단까지 균등하게 미치는 면적 중심의 영토가 아니라,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갈수록 권력이 점진적으로 열리는 점(거점)과 선(교통로) 중심의 느슨한 네트워크에 가까웠다. 이러한 시대의 경계는 변경(邊境)이거나 교류가 일어나는 완충지대였으며,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 근대적 국경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러한 유동적 공간을 후대에 발명된 면적 영토와 선형적 국경의 틀로 소급하여 지도 위에 빈틈없이 구획하는 근대적 지도화 과정은 공간에 대한 인식론적 폭력성을 내포한다. 과거의 접경지대는 서로 다른 문화와 정체성이 만나고 섞이는 공간이었으나, 오직 배타적 주권만이 존재한다는 근대 지도의 이분법적 논리를 바탕으로 단일한 국민국가의 소유권 분쟁 영역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의 복합적인 공간 질서를 현대 주권 국가의 잣대로 재단하여 역사적 맥락을 지워버리는 행위이다. 선형적 국경이 투영된 역사 지도는 과거의 실재를 보여주기보다는, 과거의 공간을 통제하고 소유하려는 현대 국가의 지정학적 코드가 투사된 시각적 발명품인 것이다.

과거의 영토를 둘러싼 지정학적 코드의 충돌

현대의 정치적 행위자들은 과거의 지배 범위를 현재의 국가 정체성과 영토적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대변되는 영토 확장적 역사 서술과 한국의 민족주의적 역사 방어가 충돌하는 현상은 과거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학술적 논쟁이 아니다. 경계가 국가정책의 도구이자 국민 정체성의 상징으로 기능하듯이, 고구려 역사 귀속 논쟁 역시 국가가 대내외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지정학적 코드가 역사적 학술 논쟁의 탈을 쓴 것이다.

중국은 다민족 국가로서 내부 결속을 다지고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고구려의 공간을 자국의 배타적 역사 서사로 편입해야 한다. 반면, 한국은 민족의 역사적 정통성을 수호하고 한반도 북부에 대한 점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에 대항해야 한다. 경계가 안과 밖을 구분하여 국가와 국민을 규정하는 장치이듯이, 양국은 고구려를 도구화하여 자국의 민족주의를 결속하고 타자를 배제하는 경계 짓기를 과거의 역사를 통해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영토 분쟁화가 된 고구려의 역사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현재의 정치가 작동하고 있는 현황인 것이다.

결론

고구려를 둘러싼 역사적 경계 논쟁은 영토, 자원, 인구를 명확하게 구획해야 하는 현대 국가의 지정학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갈등이다. 과거의 공간은 유동적이었으나, 현재의 국가는 이를 자국의 지정학적 코드를 강화하기 위한 고정된 영토적 근거로 동원하고 있다. 비판지정학은 국민국가가 제시하는 이러한 배타적이고 선형적인 역사 지도가 지닌 권력적 허구를 해체하는 데 일조해야 한다. 발제문이 제시한대로 과거 경계와 영토의 구성을 역사적 맥락에서 파악하고, 이를 현대의 닫힌 국경으로 인식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지만 이러한 비판이 가능할 것이다.